



서울시 소방관들이 광장시장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추석 연휴, 음식물 조리 부주의 화재 가장 많아

조리기구 관리 소홀 화재, 전체 71% 래 삶기(3건)가 뒤를 이었다. 119구급대 이용 건수는 총 6578건으로 조사됐다. 북통이 938건(1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사고 545건(8.3%), 요통 437건(6.6%), 구토 407건(6.2%), 두통 358건(5.4%), 의식장애 229건(3.5%), 호흡곤란 204건(3.1%), 심정지 75건(1.1%) 순이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 화재 예방을 위해 11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에 음식물 조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 추석 연휴 발생한 화재는 총 82건으로 집계됐다. 조리기구 관리 소홀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9건으로 전체의 71.9%에 달했다. 부주의 화재 중 음식물 조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꽂초(18건), 기타 부주의(5건), 빨

# 서울시, 내년 초 美 CES 첫 참여 혁신기업 24社, 세계진출 지원

#### 'CES 2020' 참가 '서울관' 운영 서울의 혁신 스마트 행정 소개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에 주력

서울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 Show)'에 처음으로 참가해 국내 기업들의 세계 진출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7~10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0'에 참가해 '서울관'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관은 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파크에 222.96㎡ 규모로 조성된다. 유레카 파크는 혁신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엿볼 수 있어 글로벌 기업관과 더불어 많은 관심을 받는 전시관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CES에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라이프(Smart City & Smart Life)'라는 주제로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비롯한 서울의 혁신적인 스마트행정을 소개한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우수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서울의 혁신기업들과 동행해 해외진출 교두보를 연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달 27일까지 CES 2020 서울관에 참여할 시 소재 혁신기업 24개사를 모집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기업에는 항공료(100만원 이내), 운송비(50만원 이내), 홍보물 제작, 현지 통역, 네트워킹 행사 참여, 피칭데이 운영 등을 지원한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시 소재 혁신기업들의 앞선 기술력과 도전정신이 서울을 세계에서 손꼽는 스마트도시로 만든 원천이다"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堂堂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경기도, '한탄강 색도 살리기' 총력전

사업장 316개소 대상 특별점검 포천천, 영평천, 신천 등 한탄강과 연결되는 지방하천과 한탄강 본류에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한탄강 색도 살리기'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단속의 총괄은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맡는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한탄강 색도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섬유·피혁 관련 사업장 31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김승열기자 kimsy@

경기도가 '한탄강 색도 살리기'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지난 7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김광철 연천군수 등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장들이 한탄강 색도 개선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 4대 분야 26개 사업에 604억 투입 뇌병변장애 아동 관리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 돌봄, 인프라, 권익 등 4대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한다. 성인 중증 중복 뇌병변장애인의 교육·돌봄·건강관리가 이뤄지는 전용센터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를 2023년까지 8곳 신설하고 긴급 돌봄 시 이용할 수 있는 뇌병변장애인 전용 단기 거주시설 3곳을 신규 조성한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총 604억원을 투입한다. 뇌병변장애인은 뇌졸중, 뇌 손상,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일상 생활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다. 현재 시에 4만1211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 전체 장애인의 10.5% 수준이다. 시는 내년부터 뇌병변장애 아동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장애를 조기에 진단하고 주기적인 관찰 연구와 적합한 재활치료를 통해 중복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TF 회의. /서울시

장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 300명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신체적 변화가 급격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전동 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만 5~34세에서 2023년까지 만 3~64세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지원받는 인원이 기존 1000명에서 26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뇌병변장애인이 사회성과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 열린 놀이방' 4곳을 설치한다. 또 사회초년생을 위한 진로실현센터를 통해 뇌병변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제공한다. 학령기 이후 갈 곳이 없어지는 성인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진학과 취업이 어려운 성인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돌봄, 교육, 건강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를 8곳 조성한다. 긴급·주말 돌봄 단기거주시설도 설치해 운영한다. 2023년까지 전담 활동지원사 7000명을 새롭게 양성한다. /김현정 기자

## 중진공-강남구청, 스타트업 지원 '맞손'

유망 혁신벤처기업 공동 육성·지원 시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교류 ▲유망 혁신벤처기업 공동 육성 및 스케일업 지원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주요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을 비롯해 벤처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 스타트업 운영기관이 밀집해 있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장 잘 구축됐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중진공은 이번 협약으로 강남구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제2의 벤처 신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일 서울 강남구청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청년창업 확산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개최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공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창업가 거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프라 연계 및 네트워킹 채널 구축 ▲창업경진대회, 기업이정신 확산 교육 실

## 광주시, 제2회 추경 5조7751억 편성

제1회 추경 대비 1709억 증액 광주시가 제1회 추경 대비 1709억 원(3.0%) 증액된 5조7751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10일 일 광주시에 따르면, 2회 추경안 중 일반회계는 1124억 원 증액된 4조6599억 원, 특별회계는 585억 원 증액된 1조1152억 원이다. 세입 중 지방세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추가 징수로 252억 원이 늘었고 세외수입 357억 원, 정부추경 반영분 등 국고보조금 491억 원, 특별교부세는 41억 원 등이 증액됐다. /광주=차정준 기자 cc6311@

시는 "이번 추경은 국가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대응 등 국가적 현안 및 지역 활력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시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 추진 256억원, 일자리사업 86억원, 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등 14억원을 반영했으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예산 노후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및 폐차 지원에 각각 12억4000만원, 164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에도 35억2000만원 편성시켰다. /경기=김승열기자

## 경기도, 도민서비스 평가단 "청결한 시내버스 만들어요"

경기도가 '시내버스 도민서비스 평가단'과 함께 쾌적하고 청결한 시내버스 만들기에 나선다. 특히 '경기클린버스 시범사업'으로 소독 및 스팀세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깔끔한 시내버스 환경을 도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도민서비스 평가단'은 일반 버스 이용객으로 가장해 버스업체의 서비스 상태를 불사·암행 점검한 후도에 제보하는 식으로 버스업체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구성·운영돼왔다.

오늘의 날씨

9월 11일 (수) 음력 : 8월 13일

수도권 날씨 28~2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10 | 해짐 / 18:47

연천 20/27, 동두천 21/27, 가평 20/25, 파주 21/27, 서울 23/28, 양평 22/27, 인천 23/28, 수원 24/28, 용인 24/28, 평택 24/28, 백령도 20/2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